

네일 결장·황동하 복귀 시동...KIA '올다가 웃다가'



16일 한화전 등판이 예정돼 있던 KIA 타이거즈의 네일이 팔 컨디션 난조로 출격이 미뤄져 갈길 바쁜 KIA에 비상등이 켜졌다. (KIA 타이거즈 제공)



'에이스' 네일, 팔 컨디션 안 좋아 출격 미뤄 교통사고 황동하, 4개월여만에 퓨처스 등판

갈 길 바쁜 KIA의 발걸음이 무겁다.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팔 컨디션이 좋지 않아 출격이 미뤄졌다.

KIA 타이거즈는 1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 '고졸 루키' 김태형을 선발로 내세웠다.

로테이션 상으로는 지난 10일 삼성전을 소화했던 네일의 등판 순서였다. 베팅 끝에 내몰린 팀 상황을 고려해도 난적과의 3연전 시작은 네일이 열 것으로 예상됐다.

이범호 감독은 16일 경기에 앞서 "네일이 어제 캐치볼 하고 팔이 무겁고 기존 느낌하고 다르다고 했다. 한 타를 건너야 한다. 기존에 풀던 느낌과 다르게 팔이 묵직하다고 해서 내일 정도까지 상황을 봐야 한다. 상태를 체크해 보고 언제쯤 등판할 수 있을지 알 것 같다. 트레이닝 파드와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네일의 상태를 전했다.

일단 네일은 16일 밝은 표정으로 아담 올라와 혼

련을 소화했다. 하지만 완벽한 몸상태가 중요한 만큼 KIA는 17일 선발 명단에 네일의 이름을 올리 지 않을 예정이다.

이범호 감독은 김건국을 선발로 투입할 예정이다.

실날같지만 5장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KIA의 마음은 급하다.

네일은 KIA가 가장 믿는 선발이다.

지난해 우승 주역인 네일은 올 시즌에도 예이스다운 활약을 펼쳐왔다.

네일은 27경기에 나와 164.1이닝을 소화했다. 키움 후라도(178.1이닝), 한화 폰세(169.2이닝)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이닝이다.

19경기에서 퀄리티스타트를 장식한 그는 2.2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폰세(1.70), SSG엔더슨(2.14)에 이어 3위다.

승운은 따르지 않으면서 8승에 머물고 있지만 네일은 가장 견고하고, 안정감 있게 KIA 마운드를

지켜냈다.

지난 3일 SSG전에서는 4일타를 소화하면서 위기의 팀을 구하기 위해 마운드 전면에 서기도 했다.

하지만 베팅 끝 상황에서 네일이 몸값표가 되면서 KIA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다.

네일 변수가 발생한 마운드에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다.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웠던 우안 황동하가 복귀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 시작했다.

지난 5월 8일 원정 숙소 근처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긴 재활의 시간을 보냈던 황동하 16일 함평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황동하는 이날 등판에서 0.2이닝 1피안타 2볼넷 2탈삼진 3실점을 기록했다.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29개의 공을 던지면서 다시 실전을 소화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10개의 직구를 던진 황동하는 최고 142km(평균 140km)를 찍었다. 황동하는 슬라이더(11구-124-129km), 포크볼(5구-123-126km), 커브(3구-110-114km)도 구사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오후성·변준수·헤이스 '베스트 11' 선정

광주FC의 오후성, 변준수, 헤이스가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하나은행 K리그1 2025' 29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수원 FC와의 원정경기에서 4-2 승리를 장식한 광주에서는 오후성, 변준수, 헤이스 등 3명의 선수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후성은 이날 상대의 자책골을 이끄는 슈팅과 함께 도움을 올리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전반 8분 오후성이 이강현이 올려준 공을 잡아 슈팅을 시도했고, 상대 골키퍼 안준수가 몸을 날렸지만 손 맞은 공이 뒤로 흐르면서 자책골이 기록됐다.

선제골을 이끈 오후성은 1-1로 맞선 전반 35분에는 도움도 기록했다.

오후성은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반대쪽으로 크로스를 올렸고, 문전에 있던 변준수가 뛰어올라 헤더로 수원FC의 골망을 흔들었다. 이와 함께 오후성의 시즌 3번째 도움이 기록됐다.

오후성의 도움으로 시즌 2호골에 성공한 변준수는 후반전 수원FC의 발을 묶는 등 공·수에서 활약

하며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헤이스는 승리를 확정하는 썬킥을 장식했다.

광주는 후반 35분 하승운의 교체 선수로 그라운드에 오른 조성권이 투입 2분 만에 골을 기록하면서 3-2 리드를 잡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1점 차의 승부가 이어지던 후반 추가 시간, 헤이스가 신장무의 패스를 헤더로 연결해 승부에 썬킥을 박았다.

광주는 이날 승리로 승점 3점을 더하면서 6위에서 5위로 올라섰다.

광주 박인혁은 실점으로 연결된 페널티킥을 내주고, 자책골까지 기록했지만 동료들의 활약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자책골을 주고받는 등 6골이 터진 이 경기는 29라운드 베스트 매치가 됐다.



오후성



변준수



헤이스

한편 29라운드 MVP는 강원FC 이유현의 차지였다.

이유현은 13일 강릉하이원아레나에서 열린 FC 서울과의 홈경기에서 전반 39분 선제골을 만들었고,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강원 FC의 공격을 견제하면서 3-2 승리를 이끌었다.

이유현과 김건희, 이상현의 득점포로 승리를 기록한 강원은 29라운드 베스트팀에 선정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여수 배구컵 대회, 여자부는 정상 개최

세계선수권 미참가로 국가대표 출전 가능... 7개팀 경기



우여곡절 끝에 2025 여수·NH농협컵 프로배구대회 여자부 경기가 7개 팀으로 치러진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16일 "국제배구연맹(FIVB)의 승인을 받아 21일부터 2025 여수·NH농협컵 프로배구대회 여자부를 정상 개최한다"며 "FIVB에서 한국은 여자부 세계선수권대회 미참가 국인으로 이번 대회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전하는 것을 승인했다. 국내 선수들은 대표팀을 포함한 전원이 출전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자부에 앞서 시작된 남자부는 파행 운영되고

있다.

KOVO는 FIVB로부터 컵대회 개최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남자부 전면 취소를 결정했다가 조건부 개최로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FIVB는 '세계선수권대회가 끝난 후 3주 이상의 휴식기를 가지고서 각국 리그 경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OVO는 컵대회를 이벤트 대회로 규정했지만 FIVB의 제동에 걸리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빛어 남자대표팀은 현재 필리핀에서 세계선수권대회를 소화하고 있다.

조건부 개최를 허락한 FIVB는 '대표팀 예비 엔트리에 포함된 선수'의 컵대회 출전은 불허했다. 그 여파로 현대캐피탈은 선수 부족을 이유로 대회 출

전을 포기했다.

여자부도 원래 일정대로 대회가 시작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변화가 있다.

세계선수권대회 미참가국인 점을 고려해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의 출전을 승인한 FIVB는 외국인·아시아권 선수의 경우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 받은 후 이번 대회 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계선수권 출전국인 선수 엔트리(예비 선수 포함)에 포함된 외국인·아시아권 선수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세계선수권대회 엔트리에 포함된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의 시마무라, 한국도로공사의 타나치 등의 대회 출전이 불가능해졌다. 연맹은 각 구단과 논의 끝에 '형평성' 차원에서 외국인·아시아권 선수는 이번 대회에 출전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FIVB가 외국팀 대회 참가를 불허하면서 초청팀이었던 득지양(베트남)의 한국행도 무산됐다. 결국 이번 대회 여자부 경기는 득지양과 외국인·아시아권 선수들을 빼고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영암세한공공스포츠클럽 야구단이 제7회 통영시장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서 역대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영암세한공공스포츠클럽 야구단 전국 제패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영암세한공공스포츠클럽 야구단이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영암세한공공스포츠클럽은 지난 14일 통영야구장에서 끝난 제7회 통영시장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서 부산부마스를 11-3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준결승전에서 '동향팀' 광주 북구를 6-4로 제압한 영암세한공공스포츠클럽은 기세를 이어 우승까지 들어 올렸다.

지난해 강천산배 우승에 이어 역대 2번째 우승이다. 안정된 수비와 매서운 공격력을 선보인 내야수 최태후는 최우수선수상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남을 포함해 광주·전북·제주 등 전국 37개팀 1400여명이 참가해 유소년부(초 6-중 1), 꿈나무부(초4-중5), 세쌍부(초3 이하)로 나눠 대결을 벌였다.

한편, 영암세한공공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아우르는 종합형 스포츠클럽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

故 유상철,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

아들 대리 수상 "아버지 사랑해주신 모든 분과 나누는 상"

제2회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자로 이름을 올린 고(故) 유상철을 대신해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과 함께 나누는 상"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유상철은 16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제2회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서 선수 부문 헌액자로 선정됐다.

'K리그 명예의 전당'은 한국 프로축구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의 업적을 기리고 K리그의 역사에 길이 남기기 위해 2023년 신설됐고 ▲ 선수(STARS) ▲ 지도자(LEADERS) ▲ 공헌자(HONORS) 3개 부문으로 2년마다 헌액자를 선정한다.

선정위원회 투표(40%), 구단 대표자 투표

(20%), 미디어 투표(20%), 팬 투표(20%)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유상철, 김병지, 김주성, 데안이 선수 부문 헌액자로 결정됐다.

유상철은 1994년 현대 호랑이(현 울산 HD)에서 프로에 데뷔해 수비, 미드필더, 공격을 모두 소화하며 멀티플레이어로 활약했다.

K리그 통산 144경기에서 38골 9도움을 기록한 유상철은 1998년 K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했고, 일본 J리그 무대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친 뒤 2005년 울산으로 복귀해 이듬해 현역에서 은퇴했다.

이후 대전 하나시티즌, 전남 드래곤즈, 인천 유나이티드 등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다 2021년 알 투병 끝에 은퇴했다. /연합뉴스



16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25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서 고 유상철 감독의 아들인 유선우 씨(오른쪽)가 트로피를 대리수상하고 있다. /연합뉴스